



**[산업]**  
LG 새 폼팩터 혁신  
전략 스마트폰  
'윙' 날개 편다  
08



**Economy**

<b>코스피</b> 2427.91 (+31.22)	<b>코스닥</b> 894.17 (+5.73)
<b>금리 (2년)</b> 0.919 (-0.07)	<b>환율 (달러)</b> 1183.50 (-3.40) (14일)

**글로벌 시장 초대형 M&A 잇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인수합병(M&A)이 연이어 성사됐다.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회사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했고,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바이오기업 이뮤노메디克斯를 품에 안았다. IT 업계와 제약업계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분야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편집자주〉

# 면역항암제 시장 게임 체인저 길리어드, 이뮤노메디克斯 인수

**이뮤노메디克斯 주식 전부 인수  
유방암치료제 '트로텔비' 확보  
다양한 종양학 포트폴리오 마련**



유방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뮤노메디克斯의 재무재표상 누적 적자는 15억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트로텔비로 인한 이뮤노메디克斯 시장 가치는 10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된다. 이뮤노메디克斯는 내년 상반기에 유럽에서도 트로텔비의 사용 승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트로텔비'를 확보하게 된 길리어드는 최근 지속적으로 면역항암제 확보에 주력해 왔다. 올해 초에는 혈액암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회사 포티세본을 약 50억 달러에 인수했고, 자운스 테라퓨틱스와 아쿠스 바이오사이언스 등 면

역항암제를 개발 중인 업체들과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는 경쟁력 있고 다양한 종양학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려는 길리어드의 노력에 중대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형 M&A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서 이뮤노메디克斯와 같은 기술을 가진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레고캠바이오는 장중 5만9900원(12%) 오르며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이뮤노메디克斯의 매각 뉴스를 비롯해 글로벌 ADC 업체들에 대한 가치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서는 다수의 ADC 플랫폼 및 물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계약 체결까지 경험한 바 있는 레고캠바이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다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성사됐다. 세계 유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보유한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바이오기업 이뮤노메디克斯를 약 210억 달러(약 25조원)에 인수한다.

길리어드와 이뮤노메디克斯는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디克斯의 발행주식 전부를 주당 88달러(약 10만4000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증가(42.25달러)에 108%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다.

이뮤노메디克斯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유방암치료제 '트로텔비'를 보유하고 있다. 트로텔비는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삼중음성

# 엔비디아, ARM 인수 '반도체 공룡' 탄생

**반도체 업계 지각변동 예고  
GPU·CPU 기술 모두 확보  
반도체 설계 독점사용 우려**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회사 엔비디아가 영국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최대 GPU회사인 엔비디아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회사를 인수하며 설계·제조 업체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ARM에 반도체 설계를 의존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ARM을 400억 달러(약 47조4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다.

엔비디아는 ARM에 주식 215억달러 규모의 보통주 4430만주와 120억

달러의 현금을 소프트웨어에 지불하게 된다. ARM 실적이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프트웨어에 50억달러의 현금이나 보통주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엔비디아는 이번 거래로 GPU와 중앙처리장치(CPU)를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CPU와 GPU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거래로 가능해진 셈이다.

엔비디아는 GPU 분야의 선두 업체다.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역대

급 실적을 내며 시총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ARM은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에 팔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로, '팹리스의 팹리스'라 불린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서버용 반도체, AI 반도체도 설계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영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실제 거래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영국 정부가 ARM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엔비디아의 ARM 매각설이 나온 이후 영국에서는 엔비디아가 ARM 반도체 설계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양성문 기자 ysw@

# 신용대출 열흘만에 1조 증가 금융당국, '핀셋 규제' 검토

DSR 비율축소 등 논의  
취약계층 피해 우려도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용대출이 불과 열흘만에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억제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될만한 대출분야에 '핀셋형'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명확한 용도분석을 통한 신용대출 규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거나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이날 오전 영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은 지난 10일 기준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보다 1조1425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행 40%(비은행권 60%) 기준을 축소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넓혀 신용대출로 주택자금대출의 우회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카페서 취식하는 손님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화되며 프랜차이즈 매장 내 취식이 재개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매장 내 취식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대응계약 코로나 치료제 개발 순항 '카모스타트' 멕시코 2상 임상 돌입

니클로시마이드도 인도 등서 진행

기간 포함 40일간 실시된다. A그룹(90명)에는 카모스타트를 14일간 경구 투여하고, B그룹(90명)은 카모스타트의 위약군을 투약하여 임상적 증상 완화를 비교 평가한다.

대응계약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대응계약은 14일 코로나19치료제로 개발중인 카모스타트 계열 의약품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에 대한 멕시코에서 해외 연구자 2상 임상에 최초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멕시코 연구자 임상을 필두로 코로나19 치료제가 필요한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 진행해 호이스타정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은 2상으로 멕시코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의학·영양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다. 경증 또는 중증증의 코로나19 외래 환자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

원할한 해외 연구자 임상을 위해 대응계약은 지난 8월 19일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응계약이 개발 중인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시마이드 계열 'DWRX2003' 역시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DWRX2003은 지난 3일 부터 인도 현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응계약은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DWRX2003 임상 1상을 승인받아 이달 중 투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